

이라크전 분석을 통한 미래전 수행 발전방향

목 차

- I. 서 론
- II. 이라크전의 작전적 특성
- III. 이라크 전례에 나타난 교훈분석
- IV. 한반도에서의 장치전 양상판단
- V. 한국군의 미래전 수행을 위한 발전 방향
- VI. 결 론



예)대령 신재현
(교육사 BCTP단 지휘통제분석관)

I. 서 론

2003년 3월 20일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9. 11 테러의 연장선상에서 아프간 전쟁에 이어 대량살상무기(WMD)¹⁾ 개발 의혹을 가진 사담 후세인 정권의 무장해제와 이라크 국민을 압제에서 해방시킨 후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선제 공격이었다. 전후 미군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안정화 및 재건과정에서 저항세력의 공격이 더욱 격화되면서 이라크 내 혼란과 무질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 자유작전’(Operation Iraq Freedom)으로 명명된 이라크 전쟁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주도해온 군사변혁의 중간평가 시험장으로서 당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등이 부족한 작전 및 지원병력을 가지고 개전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입장²⁾에도

주 1)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 핵 및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의미한다.

2) 김재명, “아프간 토라보라 공습중 화상회의로 이라크 침공 논의”, 『월간중앙』(2004년 10월호), p.352.

불구하고 강행되었으며 결국 럽즈펠드의 주장대로 1991년 걸프전시 투입되었던 다국적군 전력의 절반 수준만 투입하고도 21일이라는 단기간 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³⁾ 이를 통해 이라크 전쟁은 감시체계(CAISR)⁴⁾와 초정밀타격체계(PGMs)⁵⁾에 디지털화된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실시간대 표적획득-결심-정밀타격이라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형성함으로써 미래전의 양상을 제시해 주고 있다. 미군은 전장을 가시화한 가운데 장거리 정밀교전을 보편화 하고, 전투간 의사결정 사이클을 가속화시키며, 전장 공간의 확장과 통합, 그리고 전자전 및 사이버전의 위력을 증대시키고, 비선형 및 분산된 상태 하에서도 적시 적소에서 작전수행을 보장하는 신속결정적작전(RDO)⁶⁾을 구사하였다. 또한 종전의 대량 인명 살상 및 파괴 등 소모적인 전쟁 방식에서 디지털화된 정보화 기법과 개선된 교리를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바로 다양한 심리전과 적시 적절한 전투근무지원, 적절한 예비군의 운용,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의 작전효과가 그것이다. 그러나 전후 안정화 작전단계에서 이라크 내 과격 회교 저항단체의 차량 폭탄테러 등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미 본토에서 반전 여론의 확산과 함께 조기 철군론이 대두되는 등 고전하고 있으며, 이라크 내 다수파인 시아파와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몰락을 계기로 약화된 수니파간의 갈등이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⁷⁾

우리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 어떤 작전수행체계를 가지고 싸워야만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군사작전에 이어서 전개될 점령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라크 전쟁의 작전적 특성을 알아본 다음 미군에 의해서 주도된 이라크 전례에서 나타난 교훈 분석과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양상은 어

주 3)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 분석』(2003), p.224.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을 몰아내기 위한 1991년의 '사막의 폭풍' (Desert storm) 작전에서는 다국적군 14개 사단 56만여 명이 참전했다. 4일간의 지상군 작전은 5주간 이어진 공습으로 이라크군을 크게 약화시킨 뒤에야 개시되었다. 이에 비해 '이라크 자유작전' (Operation Iraq Freedom)에서는 12년 전보다 절반도 안되는 5개 사단 25만명이 동원되었다.

4)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CAISR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5) 정밀타격체계(PGMs : Precision Guided Munitions)

6) 신속결정적작전(RDO : Rapid Decisive Operations)은 미래 합동작전 개념으로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 다정면으로 비대칭적 전력을 포함한 분권적 합동전력을 동시적, 병행적, 비선형적, 비대칭적으로 운용하여 적을 신속하고도 결정적으로 격멸하는 작전수행 방법이다.

7) 『한국일보』, 2005. 7. 26, p.12.

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해 보고 우리 군의 미래전 수행을 위한 발전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이라크전의 작전적 특성

1. 미군은 이겨놓고 전쟁을 준비

미군은 이미 1991년 걸프전이 종결된 시점부터 예상되었던 2차 이라크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라크에 대한 구속 및 통제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걸프전시 유엔 안보리 승인을 얻어 합법적으로 이라크에 대해 군사행동을 통한 응징에 나섰다. 그 당시 유엔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에 의해 이라크가 외국으로부터 무기체계나 장비, 그리고 무기화 할 수 있는 품목 및 예비물자를 자국내로 들여올 수 없도록 금수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이라크는 급격히 산업활동의 침체와 제조업의 가동률이 저하되었고 경제력은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자연히 국방예산 확보에 제한을 받았던 이라크로서는 전체 군 병력수준이 걸프전 대비 23.3% 수준으로 약화되었으며,⁸⁾ 미군은 종전후 11년간 이라크 영공의 60%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 남·북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고 감시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라크의 연합군 항공기에 대한 적대행위를 이유로 이라크 방공망을 공습하는 등 대공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응징함으로써 이라크 전쟁 발발 시점에 이르러서는 압도적으로 제해 및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다.⁹⁾

그리고 미군은 실제로 이라크에서 개전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전반적인 전쟁수행체계에 대한 검증 실시하는 등 전승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즉, 미군은 개전 8개월 전부터 총 3회에 걸쳐 이라크군 및 현지 작전환경이 반영된 모의 전쟁연습과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전반적인 미비점을 보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먼저 미 합동전력사 주관으로 2002년 7월 24일~8월 15일까지(3주간)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일대 9개 실전훈련장 및 17개 모의훈련센터에서 FTX(20%, 전차, 전투기 포함 실병력), CPX(80%, 컴퓨터 모의) 방법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비한 합동전투실험 성격의 「Millenium Challenge 2002」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전투수행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효과기반작전(EBO), 신속결

주 8)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 분석』(2003), p.224. 이라크군은 걸프전시 150만명 수준이었으나 이라크 전쟁시에는 35만명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9)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 분석』(2003), p.51.

정적작전(RDO), 작전상황의 실시간 공유문제, 합동연동계획, 상설합동전력본부 운용, 작전통신망 운용 평가 등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었다. 또한 2002년 12월 9일~12월 19일까지(10일간) 미 중부사령부 전쟁기획참모단 700여명과 영국군 300여명 등 총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Internal Look 2003」연습을 통해 이라크 전쟁에 대비한 작전수행능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CPX 및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 화생방 방어훈련 등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전을 가정한 세부 내용 묘사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보완하였다. 그리고 개전을 앞두고 이라크 국경에 근접한 쿠웨이트 북부 사막지역에서 전차·장갑차를 동원한 미군 12,000여명이 현지 사막, 기상 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주야간 기동훈련 및 장애물 극복훈련, 수색 및 시가지전투를 숙달시키기 위해 「Desert Spring」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외 쿠르드족 등 이라크 반체제인사 5,000여명을 대상으로 미 본토에서 전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은 전쟁기간 중 연합군 전투요원 안내, 통역 등 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¹⁰⁾

2. 신속결정적작전(RDO)으로 이라크군의 마비 달성

미군은 이라크 전쟁 준비 및 여건조성을 위해 이미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 당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내 다란, 프린스 술탄기지를 비롯한 주변국에 전개기지를 확보하는 등 2차 이라크 전쟁에 대비해 왔으며, 작전환경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이라크 적지중심지역과 제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전쟁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작전여건 조성에 주력하였다.

먼저 미군은 고도의 심리전·전자전 수행으로 이라크의 항전의지를 박탈하기 위해 각계 지도자들에게 E-mail 등을 발송하여 지도부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연합군의 전력증강 등 전쟁준비 상황을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전쟁 공포심을 조성하였으며, 이라크군의 전장 이탈, 전투력 약화와 사기저하를 유도하였다. 또한 전단, 소형 라디오 투하 등 대민 심리전을 수행하였으며, 공군특수전부대, EC-130E(Commando Solo)를 사용하여 아랍어로 직접 회유 방송 실시를 통해¹¹⁾ 이라크 전쟁의 목표가 '사담 후세인과 그 추종자 제거를 통한 정권교체 및 이라크 국민의 해방'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사전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등 작전여건 조성 일환으로 '이라크 자유작전'에는

주 10)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 분석』(2003), pp.52~53.

11) 문광건, 이준호,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영 연합군의 승인 분석", 『주간국방논단』, 제945호(2003), p.4.

역대 전쟁사에서 가장 많은 특수부대원들이 동원되었다.¹²⁾ 2003년 1월부터 미국의 CIA 산하 특수작전단(SOG) 요원을 유럽의 비즈니스맨 등으로 가장시켜 바그다드, 모술, 바스라 등 주요 전략목표에 잠입, 지휘·통제·통신 및 정보시설 등 전쟁수행의 대뇌기능을 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활동과 북부 쿠르드족과 연계한 민병대를 조직하였다. 개전과 동시 중요시설,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도록 실시간 정보 제공과 해·공군 전력의 폭격을 유도하였으며, 주요 요충지, 교량, 비행장 등 점령 가능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유전지대를 선점하여 이라크군의 방화 차단과 주요 항구의 진·출입 항로상에서의 기뢰 설치 거부 등 해상교통로 방호활동도 전개하였다. 이런 특수부대는 아군의 전진과 관계없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밀타격을 유도함으로써 미래 기동전의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¹³⁾ 그리고 미·영 연합군은 걸프전시 다국적군 전개기간이 약 7개월 소요되었던 데 비해 이라크전시는 3개월 만에 작전지역으로 전력의 전개를 완료하였다.¹⁴⁾ 지상전력은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지부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에 총 19만 4천명이 전개하였으며, 공중전력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디에고 가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에 전투기 등 항공기 총 1,600여대가 전개되었다. 해상전력은 지중해에 항공모함 트루먼, 루즈벨트호, 걸프해역에 항공모함 키티호크, 컨스텔레이션, 링컨, 로얄 아크호 등 총 항공모함 6척, 함정 140여척, 항공기 480여대가 전개되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결정적인 작전으로 단기간 내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바그다드로의 신속기동전략을 구사하였다. 당초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전쟁 개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의 제거를 전쟁 종결의 의미로 보았으나 ‘斬首’(Decapitation) 작전을 통한 사담 후세인 제거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예상보다 전쟁수행 상황이 빠르게 진척되자 작전선인 바그다드로의 신속한 기동전략으로 급선회하였다. 즉, 2003년 3월 20일 20:00에 개시한 선별적인 공습이 사담 후세인 등 전쟁지도부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작전에 돌입하였다.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군의 전의를 무력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정밀 유도미사일로 이라크의 C4I 시설, 방공망 등 작전적 목표에 대한 고강도 정밀공습 실시와 동시에 「신속기동전략」개념에 의거 지상군부대와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하였다.

또한 우회전략과 유연성(Flexibility) 발휘로서 미군은 참수작전 개시후 14시간 30분만에 지상군을 바로 투입한 것은 걸프전 당시 5주간에 걸친 공중폭격 후 지상군 투입이라는

주 12) 김재명, “아프간 토라보라 공습중 화상회의로 이라크 침공 논의”, 『월간중앙』(2004년 10월호), p.354.

13) 김정익, “이라크 전쟁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합참』, 제21호(2003), p.63.

14)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분석』, (2003), p.224.

전통적인 무기체계 운용과 기동전략은 작전템포와 속도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라크군의 방어준비시간을 박탈하여 방어력이 강화되기 이전에 공격을 실시하여 기습을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미군은 전쟁초기 지상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나시리아, 나자프, 카르발라 등 거점도시를 우회기동함으로써 전략적 중심인 바그다드로 최고의 진격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후속 전력으로 하여금 우회한 전략거점과 잔적을 봉쇄, 공중공격, 포병화력을 집중하여 이라크군을 조기에 격멸하였다. 그러나 이라크군의 게릴라 전술에 의해 미군의 신장된 병참선이 위협을 받고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과 함께 측방이 노출되면서 후방 차단 위협이 증대되었고, 특히, 강한 모래바람 때문에 미군의 진격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자 제101공중강습사단과 제82공정사단을 긴급 투입하여 주공인 미 제5군단 및 조공인 제1해병기동군의 측후방과 병참선을 방호함으로써 바그다드로의 지속적인 진출 속도를 보장하였다.

토미 프랭크스 전 미중부사령관이 언급하였던 대로 최초 작전계획상의 가정에 대한 현실적 오류가 발생하면 유연성 있게 대응하였는데 몇 가지 실례를 들여보면 터키가 자국 내 기지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당초 계획하였던 북부전선 형성에 차질이 빚어지자 미 제4사단 대신에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제173공정여단과 지중해의 제26해병원정대(MOU)를 편제 헬기와 C-130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목표지역으로 투입하는 Rolling Start¹⁵⁾를 강행하여 결국 북부지역에 배치되었던 이라크군을 견제할 수 있었다. 또한 주공인 미 제3사단이 예상하지 못했던 페다인 민병대의 기습과 주요 도시 장악으로 최초 계획이 좌절되었으나 저항이 거센 도시지역을 우회하여 바그다드로 직행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의 시가전 준비시간을 박탈하였으며, 현지 부대의 위력수색으로 적의 약점을 간파하고 곧바로 시가지로 진입하여 2003년 4월 9일 바그다드를 함락시킨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미군은 C4ISR+PGMs 네트워크체계에 의한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군사위성(Key Hole, DSP, IMEWS, JUMPSEAT), 통신위성(AF SATCOM, FLTSATCOM, SDS, MILSTAR), 조기경보/요격위성(ALMV, COSMOS-394, 404), 항법위성(NAVSTAR), 기상위성(DMSP), 공중전력(E-2C, EP-3E, EA-6B, U-2, JSTARS, AWACS, UAV, RC-135V/W) 등 우주전력과 항공전력을 운용하였다.¹⁶⁾ 이를 통해 걸프전시 핵심표적에 대한 탐지능력이 15% 수준이던 것이 70% 이상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전장인식체계(ISR)와 정밀유도무기체계(PGMs)가 지휘통제체계

주 15) 김정익, “이라크 전쟁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합참』, 제21호(2003), p.65. 병력이 도착되는 대로 전선에 투입한다는 개념이며, 적시성 및 공격템포 유지를 고려 증원 즉시 전장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16)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 분석』(2003), p.183.

(C4I)에 연동되면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제반 전투요소들을 디지털화된 네트워크로 연결 및 결합시켜 전장정보를 공유한 가운데 새로운 전투력을 창출하였다. 이와 같은 복합 네트워크체계가 운용될 수 있었던 것은 범세계 지휘통제체계(GCCS-J), 기동통제체계(MCS), 전 출처 분석체계(ASAS), 전방지역 방공지휘통제체계(FAADC3I), 개량된 야전포병 전술데이터체계(AFATDS) 등 기반구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전장정보의 공유는 전쟁 및 전투의 의사결정 사이클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즉, 과거에는 관찰-상황판단-의사결정-행동과정 순이었다면 이라크 전에서는 관찰-상황판단 과정이 정보로 단일화되어 정보-의사결정-행동 순으로 바로 연결됨으로써 전쟁 및 전투의 의사결정 절차가 대폭 단축되었다.

이러한 탐지체계와 정밀타격체계가 복합 네트워크로 결합되는 과정은 먼저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을 통해 획득된 첩보 및 정보는 연합군 공군구성군사령부(CFACC)에서 실시간 수집 및 분석하게 되고, 첩보자료는 카타르 현지사령부와 쿠웨이트 지상군사령부로 동시에 전파되며, 지상군사령부는 지상군 표적을 인공위성 데이터시스템을 통하여 예하 작전지휘부로 전파하고, 지상군 사단사령부는 인공위성 데이터 통신, 화상통신 등을 통해 대대급까지 표적정보, 작전명령 등 지침을 실시간 하달함으로써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3. 전후 연합군 피해 급증, 이라크의 안정화 및 재건사업 지연

이라크 전쟁이 개시되기 2개월 전인 2003년 1월 20일 전후에 이라크 재건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기 위한 미 국방부내 사무국이 설립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독일 재건을 위한 미국의 준비가 전쟁종료 3년 전부터 시작된 점과 비교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¹⁷⁾

미군은 종전 후 이라크의 안정화와 재건사업을 위해 2003년 6월 15일부로 군정체제 유지 등 연합군사령부(CJTF-7) 수행 과업을 지상구성군사령부(CFLCC)로부터 미 제5군단으로 전환하였다. 미군이 수립한 이라크 재건계획은 이라크 내에서의 안정을 조성하고 신속하게 민간질서를 회복하며, 부족·종족·종교적 유산을 유지한 상태 하에서 이라크인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대표성 있는 정부를 수립한다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접국가로 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고 실패시 신속하게 격리시키며, 필수적인 이라크 기간산업과 사회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면서, 합법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이라크 군대 및 경찰기관으로 개혁하고

주 17) 박철균, “치안·질서유지 실기했다”, 『국방저널』, 제366호(2004년 6월호), pp.28~32.

사회적 안정화와 재건에 필요한 정부기능과 기관 설치 등의 군사목표를 설정하였다.¹⁸⁾

이라크 전쟁에서 연합군의 전후 처리 정책은 군정-과도정부-새 정부 구성의 3단계로 합의되었다. 먼저 제1단계는 군정으로서 미·영 연합군이 종전과 동시에 안보와 치안을 포함한 이라크 통치에 관한 전체의 권한을 행사하되 미 재건인도지원처(ORHA)가 의료·전기·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시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유엔 주관으로 구성된 이라크 대표자 회의에서 이라크 과도정부(IIA)를 구성하되 IIA는 출범 당시에는 행정권을 갖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연합군과 재건인도지원처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단계적으로 정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제3단계는 이라크 내부 인사는 물론 해외 망명 반체제인사를 포괄하는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제헌의회는 이라크 국민 전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헌법을 기초하고 민주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제헌의회가 만든 헌법에 따라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연합군사령부는 이라크 내 안전한 안보환경을 확립하고 정부 및 지방 행정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라크 내에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며, 의명 수립한 민간정부에 책임을 전환하고 연합군 병력이 철수하기 까지 약 33~4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 추진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¹⁹⁾

그런데 이라크 내 회교 저항세력의 공세로 미군의 이라크 안정화 및 재건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성과도 매우 부진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간 전쟁 등 다각적인 테러 응징에 나섰지만 이라크를 포함 세계 도처에서 차량 폭탄테러 등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 내 미·영 연합군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며, 회교 저항단체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는 이해당사국에 대한 테러행위도 점증하고 있다.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 폭탄테러는 모로코 이슬람 전투단체(GICM)가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모로코의 대표적 휴양지인 카사블랑카에서 45명을 숨지게 한 폭탄테러 공격에도 그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5년 7월 7일 런던 연쇄 폭탄테러로 인해 총 100여명이 희생되었으며, 런던의 열차 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 폭탄공격은 지난 9·11 테러를 연상하게 하였다.²⁰⁾ 2005년 7월 19일 이라크의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된 헌법초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온건 수니파 위원 2명이 암살되었는데 동 암살이 이라크 과도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아파와 수니파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8월

주 18)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 분석』(2003), p.224.

19)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 분석』(2003), pp.72~73.

20) 『경향신문』, 2005. 7. 11, p.11.

4일 바그다드에서 장갑차를 타고 임무수행 중이던 미 해병대원 14명이 저항세력이 매설해 놓은 지뢰 폭발로 전원 사망한 것을²¹⁾ 비롯 전후 미·영 등 연합군 총 1,800여명이 사망함으로써 전쟁 중 사망자 총 148명 대비 인명손실이 12배에 이르고 있다. 2005년 8월 5일 알 카에다의 제2인자 알 자와히리는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테러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인 협박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전에서 보다 더 큰 공포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²²⁾

Ⅲ. 이라크 전례에 나타난 교훈 분석

1. 미 군사변혁의 중간 시험대로서 미래전 양상 제시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앞두고 예방적 선제공격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뒤인 2002년 1월 10일 연두교서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미국이 이라크를 선제공격하겠다고 나선 것은 테러와의 전쟁은 사실상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테러리스트와 전쟁을 벌이기에 불가능하므로 이라크라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 적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려 들거나 대처할 경우에는 쌍방간 충돌로 인한 출혈을 강요하게 되고, 나아가 주변국에게도 심대한 파괴 내지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적이 위험한 기술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거부, 저지, 차단하는 것은 상식이자 자위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위협의 싹’(Emerging threats)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 전에 규제에 나서는 선제공격의 방도를 채택하였다.²³⁾ 또한 독일·프랑스·러시아·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결의를 통한 대이라크 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유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Legitimate self-defense) 조항에는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로 명시되어 있지만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까지를 정당방위의 개념에 포함시켰다.²⁴⁾ 그리고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한 유엔 결의 제678호(1990년 11월 29일), 이라크의 무장해체를 휴전 조건으로 규정한 제687호(1991년 4월 3일)와 이라크 내에서의 사찰·군축·테러리즘의 폐기 의무를 부과한 제1441호(2002년 11월

주 21) http://search.imnews.imbc.com:8080/search/news_search.jsp(2005. 8. 4)

22) 상계자료(2005. 8. 5)

23) 문광진, 이준호,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영 연합군의 승인 분석”, 『주간국방논단』, 제945호(2003), p.2.

24) 박현욱, “이라크 전쟁과 민사작전 교훈”, 『합참』, 제21호(2003), p.76.

8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이를 위반함으로써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에 직면한 점 등을 적용하여 이들 유엔 결의는 시간경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후속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지속되므로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초 미국은 유엔 무기사찰단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의혹을 규명하려고 하였으나 이라크 측의 비협조로 무위로 끝나자 대량살상무기 제거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개전을 하였으나 결국 관련 혐의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처음부터 전쟁을 반대하였던 독일·프랑스·러시아·중국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위협적인 혐의나 물증이 없더라도 심증만 가지고도 자국의 군사력을 투입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미군은 이라크전에서 검증을 거친 군사변혁의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미군의 군사변혁은 전 영역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월등한 정보우위를 기반으로 압도적 기동, 정밀교전, 초점화 군수지원, 전 차원 방호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²⁵⁾ 미군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지식과 정보가 군사력의 핵심요소로 정착되었으며, 기존의 대량 파괴에서 탈피한 비살상전이자 효과기반작전(EBO)²⁶⁾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즉, 전장인식, 정보공유, 향상된 정밀타격능력은 전쟁의 확실성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최소 희생으로 전승을 달성할 수 있었고, 첨단기술에 의한 정밀타격체계의 발전으로 사거리 연장과 파괴력, 정밀도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우주, 사이버 공간까지 전장 공간이 확대되고 무인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감시체계와 지휘통제체계가 결합된 복합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이라크의 중심인 바그다드로 직접적인 접근전략을 구사하면서 「전자적 전격전」이라는 신 전략적 사고를 태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요망효과에 기반한 신속결정적작전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미군은 신속결정적작전(RDO)의 3요소인 지식, 지휘통제, 작전분야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전쟁이전과 전쟁간 합동작전을 준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긴밀히 연계되고 통합되어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가져왔다.

주 25)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 분석』(2003), p.214.

26) 미 합동군사령부의 용어해설을 보면 ‘효과기반작전’(EBO : Effects Based Operation)이란 기술적, 작전적, 전략적 수준에서 가용한 모든 군사적, 비군사적 능력을 적에 대하여 상승적(Synergistic), 승수적(Multiplicative), 누적적(Cumulative) 방법으로 사용하여 바람직한 전략적 효과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미군은 적의 중심과 핵심 노드를 식별하기 위한 기반 지식을 구축하였는데 지식이란 적, 아군, 작전환경 및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전투력의 요망 효과 창출의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²⁷⁾

미군은 작전적실체평가(ONA), 공통작전상황도(CROP), 합동정보·감시·정찰(JISR)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라크군과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하고도 방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작전세력들 간 복합 네트워크체제를 운영하여 관련지식을 공유한 가운데 실시간대 작전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수립, 분석,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비군사적인 수단과도 연계되어 당면한 사안이 시스템적으로 이해되고 분석되어 실시간대 작전목표-작전효과-군사행동간 일련의 관계 형성을 통해 이라크의 중심과 핵심 노드(Nodes)를 식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다.²⁸⁾

또한 미군은 유관기관을 포함 동시성과 통합성 달성을 위한 지휘통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라크전에서 C4ISR+PGMs 연동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선형적이고 분산된 가용전투력의 적시 적소에서 동시성과 통합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설합동군본부(SJFHQ), 합동계획(JIP), 유관기관작전(LAO), 다국적작전(MO) 등 지휘통제 개념을 발전시켰다. 상설합동군본부는 육·해·공군·해병대 등이 분산된 상태에서 시·공간적 동시적으로 비선형 전투력을 운용하기 위해 각종 무기운반체의 비행거리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표적 도달시간 등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전투력, 시간, 공간이라는 전투요소²⁹⁾를 작전의 목적에 통합시킴으로써 전장기능의 통합, 각 군과 연합군의 노력의 통합, 전투력 효과를 통합시킬 수 있었다. 미군은 이라크전에서 국가 차원의 합동협조단을 편성하여 국무성, 사법부, CIA 등 군사 및 비군사 분야를 망라하여 하나의 지휘통제의 틀 속에 통합하였다.

그리고 미군은 이라크의 중심과 핵심 노드에 신속결정적인 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작전은 요망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효과기반작전(EBO)과 작전보장수단을 필요로 한다.³⁰⁾ 미군은 기반지식 및 지휘통제체계를 통해 적의 시스템상의 중심과 핵심 노드를 식별할 수 있었으며, 우세한 기동(DM), 정밀교전(PE), 정보작전(IO)을 통해 성공적으로 효과기반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즉, 미군은 요망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압도적인 작전템포로 이라크의 중심으로 직접 접근하였으며, 목표 또는

주 27) 이장근, “이라크전을 통해 본 신속결정적작전(RDO)”, 『군사평론』, 제365호(2003), p.102.

28) 김태규, “효과기반작전(EBO) 개념과 한국군 적용 및 발전방향”, 『합참』, 제22호(2004), pp.220~224.

29) 육군대학, 『전리입문』(1998), pp.23~30. 전투는 전투력, 시간, 공간 세가지 요소에 의해 지배되는데 전투력은 적을 타격하는 기본요소이고, 시간은 明暗, 寒暑, 晴雨 등 자연적 현상과 시기를 말하며, 공간은 지형특성과 같은 자연현상과 지대 및 태세를 말한다.

30) 이장근, “이라크전을 통해 본 신속결정적작전(RDO)”, 『군사평론』, 제365호(2003), p.104.

표적의 위치를 확인, 감시, 추적하여 JDAM 등 정밀무기체계로 타격하였고, 정보작전을 통해 물리적 파괴, 전자적 사이버전, 인지기 심리 및 공보작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속결정적작전 수행 시 필요한 군사적 조건 형성을 위해 이라크군에 대한 접근 보장, 신속부대 전개, 신속성 유지 작전, 다차원 방호 등 작전보장수단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미군은 이라크의 두뇌와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핵심요소를 조기에 파괴, 대미 항전의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었다.

3. 이라크 안정화 작전의 失機로 고전, 사태 악화 초래

이와 같은 미군의 작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내 각종 위험자산 동결 지연으로 저항세력의 무장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전·평시 군부대가 주도하는 민사작전은 주둔지역 및 작전지역내에서 군부대와 정부 또는 지방 행정기관 및 주민과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제반 활동으로 군에 대한 군사작전의 지원을 보장하고 정부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와 같은 민사작전 내지 군정 업무는 점령지역 내에서 임시 또는 과도정부의 치안유지 계획에 의거 공공의 안녕 및 사회질서가 유지된 가운데 유동 주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우군의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그 효능이 발휘될 수 있다.³¹⁾

걸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2003년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면서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격언처럼 사담 후세인이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미군은 매우 어렵게 공격작전을 수행하였다.³²⁾

만일 이라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대량살상무기로 연합군을 공격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대량 인명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걸프 및 이라크 양대 전쟁기간 중 과연 이라크가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공격하지 않을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사실 미군은 전투현장에서 지속적인 MOPP 1~2단계를 적용함으로써 온열손상 발생 등 전투피로도가 증대되었고, 전투력 발휘면에서 많은 제한을 받았다. 아마도 미국이 걸프전에서 바그다드를 목전에 두고도 종전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로 공격해 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인명

주 31) 육군본부, 『후방지역작전』(2004), pp.5-20~5-22.

32) 김재명, “아프간 토라보라 공습중 화상회의로 이라크 침공 논의”, 『월간중앙』(2004년 10월 호), p.353. 토미 프랭크스 전 미중부사령관은 “2003년 3월 나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이 전쟁 초기에 대량살상무기를 우리 미군 장병에게 사용할 것으로 여겼다”고 기술하고 있다.

피해를 고려한 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미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적의 중심인 바그다드로 최대한 신속히 기동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모든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었으며, 전후 이라크의 안정화 및 재건문제를 심사숙고할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순차적인 점령지역에서 저항세력과 각종 총기, 탄약, 폭발물 등 위험자산에 대한 엄중하고도 조직적인 분리 색출과 동결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회교 저항세력들이 무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군의 시·공간 통제 지연으로 이라크 내 저항세력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군의 이라크 점령 후 안정화 실시방안이 시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시급하게 착수했던 관계로 기본적인 치안유지와 군정 실시 등에 소요되는 사담 후세인 치하의 공무원, 군·경을 제한적으로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두 해산시킨 다음 새로운 반 후세인 세력으로 재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평가, 방책 비교 분석, 결심 시행을 고려한 구체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³³⁾ 즉, 미군은 당장 시급한 전승에만 관심을 경주했을 뿐 전후 안정화, 재건세력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부족했던 것이다. 결국 미군은 점령지역인 이라크에서의 행정력 발휘, 혼란 수습, 치안유지, 방위에 필요한 공무원, 군·경을 해산시킨 나머지 전후 이라크에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 안정화, 재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과오와 손실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토미 프랭크스 전 미중부사령관도 그의 회고록 '미군 (American soldier)'에서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다음에도 이라크군을 해산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들은(수니 삼각지대에서³⁴⁾

미군을 상대로 무장 게릴라 활동을 벌이지 않고) 새로운 이라크 건설에 몸을 바쳤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실토하고 있다.³⁵⁾ 또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전략문제 연구소(CSIS) 앤서니 코즈먼 선임연구원도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바그다드 점령 뒤 이라크군 해산조치를 발표한 후 새로운 이라크 병력을 양성할 귀중한 시간을 1년 동안이나 허비했다. 미군이 이라크군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라크인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한 것은 수니 삼각지대에서 이라크 저항세력의 활동이 격화된 이후인

주 33) 육군교육사령부, 『지상작전(수행교리)』(2003), pp.4-1~4-11. 작전수행체계는 계획수립, 명령하달, 작전준비, 작전실시와 지속적인 평가의 반복된 순환과정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순환과정은 순차적으로 수행되나 서로 분리된 활동은 아니며, 상호 중복되고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34) 수니 삼각지대(Sunni Triangle)는 바그다드-팔루자-티크리트를 잇는 지역을 말하며, 사담 후세인의 지지기반인 수니파 저항세력의 공세에 맞서 2004년 4월 미군이 대대적으로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던 지역이다.

35) 김재명, "아프간 토라보라 공습중 화상희어로 이라크 침공 논의", 『월간중앙』(2004년 10월 호), p.355.

2004년 5월부터 이다”라고 안정화 작전이 뒤늦게 착수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³⁶⁾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이라크 내 치안부재와 대혼란이 초래되었고 국경선 통제도 미흡했던 나머지 외국 회교 저항세력의 유입을 허용하는 등 시·공간적 통제상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군의 이라크 내에서의 인원 및 물자에 대한 통제가 지연되면서 저항세력의 규모가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미군은 이라크 점령지역의 확대에 따른 순차적인 인적·물적 이동 및 사용 통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허술하였다.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 등 선량한 주민과 회교 저항세력을 상호 분리하여 격리시킬 수 있는 호기를 상실함으로써 통제불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라크 주민 속에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으로 유입된 회교 저항세력의 확대로 전후 안정화, 재건사업에 대규모 희생과 고비용의 지출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전후 이라크 내 미군은 회교 저항세력으로부터 일일 평균 70여회씩 공격을 받고 있으며, 사상자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005년 8월 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 행정부가 이라크 내 주둔 미군의 철군 시사에 불구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비율이 61%에 이르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42%로서 사상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인의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³⁷⁾ 미군이 주도하는 이라크에서의 안정화 및 재건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될수록 저항세력의 연합군에 대한 공격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코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현지 토착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말해주고 있다.

Ⅳ. 한반도에서의 장차전 양상 판단

1. 이라크와 다른 한반도 작전환경

이라크와 한반도는 지형 및 기상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라크의 지형을 살펴보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충적평원지대는 기복이 적으며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중심으로 북 및 북동부에 해발고도 3,000M 이상의 쿠르디스탄 산지가 있으며, 남부지역은 광대한 사막이 국토의 5분의 2를 차지한다. 이라크의 기후는

주 36) 국방저널 편집부, “이라크군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국방저널』, 제371호(2004년 11월 호), p.57.

37) 『경향신문』, 2005. 8. 9, p.12.

사막성 건조기후로서 전반적으로 고온 건조하여 이른 봄에는 모래바람, 하계인 5~9월의 평균기온이 38~49°C까지 상승하나 동계 북부 산악지역은 혹한으로 강설이 있다. 강수량은 쿠르디스탄 산지에 연간 400mm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조기인 5~10월에는 거의 강수량이 없으며, 우기인 3월에는 평균 28mm 수준이다.

한반도의 지형은 국토의 75%가 산악지대로서 동고서저, 북고남저의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종적인 도로와 철도망이 발달되어 있으나 다소 제한된다. 동부와 북부는 산지의 소구획형으로 고지, 계곡, 능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482M로서 평야는 경사도 5% 미만의 평탄지가 23%에 불과하여 대부분 급경사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한지역은 도로와 철도가 제한되고 작전지역이 북쪽으로 확대될 경우 낭림산맥에서 개마고원은 작전을 동서로 분리한다. 한반도의 기후는 온대지역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하고 각 계절별 기상변화가 심하다. 춘·추계는 비교적 기후가 온화하고 강우량이 적어 산불, 황사시를 제외하고는 군사작전에 양호한 기상조건을 제공한다. 하계 혹서기후는 신체적 활동제한과 열사병을 발생시키며, 우기의 집중호우는 기동에 제한을 주고, 고온다습한 기후는 기동, 화력, 전자, 광학장비의 정비수요를 증대시킨다. 동계의 한랭한 기후는 신체적 활동을 제한하고 동상환자를 발생시키며 전투근무지원 소요를 증대시킨다. 또한 강설은 기동에 제한을 주고, 지면 결빙은 야전축성과 장애물 설치소요기간을 증가시키며 북서 계절풍은 적의 화공, 화학 및 연막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³⁸⁾

이와 같이 이라크와 한반도의 지형 및 기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작전수행방법, 전투력 효과 달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양자간의 지형 및 기상특성은 미군 등 연합군이 대 이라크전에서 달성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한반도에서는 경우에 따라 달성할 수 없도록 하거나 상당 부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동·북부와 같은 산악지역에서는 피아간 신속한 기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형의 기복과 울창한 수목 등으로 감시 및 정찰을 비롯한 정보작전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고, 산악지형에서 땅굴이나 갱도진지와 같은 인공지물과 결합될 경우 이라크전에서와 같은 작전효과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즉, 탈북한 장성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일은 이라크 전쟁 중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인 ‘철봉각’에서 ‘작전조’와 김정일 군사작전 보좌실 소속위원 약 120여명을 소집하여 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정일은 ‘감시실’에서 미군의 이라크 공습 화면을 보고 “미제도 별것 아니다”라고 큰소리를 쳤으며 김정일은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오히려 안심을 했다고 한다. 이라크군이 미군에

주 38) 육군본부, 『지상작전』(1999), pp.2-1~2-4.

분쇄당한 것은 이라크가 사막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일의 지적이었다. “발견이 용이한 사막지대에서조차 미군은 이라크군의 지하군사거점을 찾으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인 북한의 각지에 구축된 지하요새는 발견당하지 않는다. 즉, 제2의 이라크로는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굳혔다는 것이다.³⁹⁾

또한 이라크와 한반도는 도시화 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인공구조물은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대체로 단위면적당 건축 밀도가 낮고 저층이며 비교적 현대적 건축공법보다 전통적인 건축기술에 의해 구축되었다. 주요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연 재료인 흙벽돌 등을 사용하여 재래식 기법에 의한 인공지물이 존재한다.

한반도에서의 도시화 수준은 남·북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남한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 도시까지 중층이상 콘크리트 구조물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건축 밀도가 높다. 반면 북한지역과 남한에서 도시를 벗어나면 저층의 인공구조물이 산재되어 있으나 콘크리트 벽돌, 내화벽돌, 흙벽돌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화 수준의 차이로 인해 이라크에서는 기계화 부대의 양호한 기동여건이 제공되고, 장애물 극복능력도 양호한 반면 한반도 지역에서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척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라크에서보다 기동여건이 제한되고, 장애물 극복능력도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라크와 다른 북한군의 전력구조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북한의 김일성이 인권탄압 등 독재권력을 행사한 점에 있어서는 대동소이 하지만 주민에 대한 사상무장과 통제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많다. 미군은 탁월한 지휘통제, 감시정찰 기술로 이라크의 국가 및 군사목표물을 정밀타격 하였지만 북한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정밀타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라크는 걸프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리라는 예상을 심각하게 해본 적이 없는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이래 미국을 적대국으로 상정해놓고 있다. 북한초등학교 1학년 산수교과서에서조차 “미국 제국주의 비행기 10대가 공격해오는데 우리 군대가 8대를 무찌르면 미군 비행기 몇 대가 남아 돌아가지요?”라고 예문을 들고 있을 정도다. 북한 주민은 어릴 적부터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에 의거 사상무장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소위 ‘총폭탄 정신’으로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되면 죽음으로서

주 39) 박정구, 『한반도에서 미래 지상전 수행 발전방향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안보국방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년, pp.42~44.

부여된 과업을 완수하려는 정신무장이 구비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주민은 '5호 담당제' 등에 의해 상호 감시, 고발정신을 일상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민은 보이지 않는 통제의 틀 속에서만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일종의 대표적인 통제의 틀인 평양 지역에서의 대규모 군중대회 등에서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라크가 주로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문책 등 중·상층부 통제에 힘썼다면 북한은 저변의 인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통제를 우선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라크와 북한이 반미를 추구하면서 적대관계를 형성해 왔던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이 있으나 미국과의 전쟁준비 수준면에서는 비대칭 전력⁴⁰⁾ 등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담 후세인은 1988년 3월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이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국민통합의 약화 등 국내정세가 기울자 이 때를 호기로 인식하고 독립투쟁을 가속화하자 같은 회교 수니파이면서도 다른 종족인 쿠르드족에 대해 독가스를 사용하여 5,000여명을 학살하는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였던 경험이 있다.⁴¹⁾ 그 후 걸프전에서도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미국은 약 5주간에 걸친 공습을 감행한 후 4일간 유프라테스강선까지만 지상작전을 실시하고 바그다드를 함락시키지는 않았다. 이라크전을 목전에 둔 2003년 1월 23일 당시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관이 암만에서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와 접촉시 “프랭크스 장군, 믿을 만한 정보통에 따르면 이라크 사람들이 생화학무기를 감춰두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언질을 받았고,⁴²⁾ 또한 2003년 1월 27일 그가 이집트를 방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으로부터도 “프랭크스 장군, 당신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담 후세인하고 대화를 나누어 왔어요.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대량살상 무기 특히 생물무기를 실제로 갖고 있고, 당신 부하들을 겨냥하여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라는 경고성 언질을 받은 바 있다.⁴³⁾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전쟁기간 동안 미·영 연합군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비대칭 전력을 양산할

주 40)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1999), p.264. 비대칭 전력이란 전략환경, 군사과학기술발전, 전쟁수행방법 변화 등을 고려,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해 전력의 규모, 전투능력 및 무기체계 면에서 적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여 적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거나 능력을 과시하여 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부동성과 우월성을 원칙으로 하는 작전으로서 부동성은 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개발하지 못한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적의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 공격하거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우월성은 적보다 양적·질적인 면에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41) <http://www.i-soccer.co.kr/section-007100007/2005/02/007100007200502161903219.html>

42) 김재명, “아프간 토라보라 공습중 화상회의로 이라크 침공 논의”, 『월간중앙』(2004년 10월호), p.353.

43) 상계서, p.353.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과정, 군사사상 및 군사전략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21일 소집된 이른바 '別午里' 회의라는 제3차 당 중앙위원 회의에서 김일성은 스스로 군사전략적인 관점에서 6.25 남침, 후퇴 간 북한의 군사전략상 과오와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즉, 한국전쟁 전반기에 있어서 김일성은 전략적 예비대 확보 미흡, 군간부의 지휘 미숙, 부대규율 미흡, 기습 남진으로 서울 점령 후 3일간 지체함으로써 한국군의 재편성 기회 부여, 제공·제해권의 상실, 제2전선 형성 망각, 후방공급사업 미흡, 정치공작사업 부족 등 8대 핵심적인 과오를 적나라하게 제기하였다.⁴⁴⁾ 이와 같은 6.25 남침 과오 분석은 그 후 북한의 군사사상, 군사정책에 반영되어 오늘날까지 군사력 건설의 기본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한국전쟁 기간 중 압도적인 미 해·공군력에 의해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북한은 휴전과 동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지하에 핵심 군사시설, 공군기지, 해군기지 등을 건설하는 것이었으며, 중심기동전술(OMG)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수의 전차 및 기계화 군단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50여년 간 군비를 증강해오면서 피폐한 경제력으로 더 이상의 군비 증강이 어렵게 되자 반영구적으로 막대한 군비 소요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핵,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개발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증강시키고 있다.

3. 예상되는 북한군의 공격양상 판단

먼저 북한군은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선제기습전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는 남한의 인구 총 4,905만 명중 47.95%인 2,352만 명(서울 1,028만 명, 수도권 1,324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⁴⁵⁾ 그런가하면 남한 전체 경제력의 47.9% 수준이 집중된 핵심적 중추이면서⁴⁶⁾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40km라는 지근거리에 위치한 나머지 북한군으로서는 부대를 전개시키지 않고 현재의 배치선에서 부대의 조정 없이 공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또한 언제든지 화력을 집중시켜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을 이용하여 남한 정부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이 공격을 받을 경우 조밀한 도심지역에서 피난민과 차량이 혼재된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면서 한·미 연합군의 효과적인 군사작전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주 44) 육군대학, 『한국전투사』(1998), pp.441~445.

45) <http://www.kosis.nso.go.kr> 통계청 구시군별 및 내외국인별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른 것이다.

46) http://www.donga.com/fbin/output?f=totalbo&code=b0__&n=200412200245&submenu=2 2004년 말 기준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생산비중(서울 21.9%, 인천 4.9%, 경기 21.1%)은 1985년 42.0%에 비해 5.9% 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제반 요소를 종합해 볼 때 북한으로서는 서울을 기습 점령하는 것이 곧 남한 전체를 석권하는 효과를 달성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은 서부, 중부, 동부전선 어느 지역에서든 재 남침을 기도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서울을 전략적으로 포위할 수 있도록 작전적 기동을 감행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략적 포위기도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습전을 채택할 것이 확실시 된다.

또한 북한군은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한계점을 고려 최단기간이 소요되는 속전속결을 기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일제시대에 북한지역에는 수풍발전소, 송림제철소 등 비교적 기간산업이 조성된 반면 남한지역에는 방직공장 등 경공업시설이 유치됨으로써 해방 후 이북지역이 에너지원 확보 등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한데다 전후 복구를 위해 구소련, 중국 등의 적극적인 경제지원 정책에 힘입어 60년대까지 만해도 남한보다 북한이 경제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60~70년대 남한의 제1, 2,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으로 남북간 경제적인 격차가 점차 좁혀지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 해외 수출규모가 증대되면서 경제력에 있어서 남한이 대북 우위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은 식량부족 등 경제난으로 소위 '고난의 행군'⁴⁷⁾이 이어지자 북한·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자가 급증하고, 아사자수가 현재까지 약 35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⁴⁸⁾ 거기에다 기술수준이 낙후되고 노후화된 산업시설의 공장 가동률이 20~40% 이하로 격감하면서⁴⁹⁾ 소위 인민을 굶기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연간 150~200만t 가량의 식량을 대외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농업생산기반이 벌써 10여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국민총생산 규모로는 그들이 추구하는 '3대 혁명역량'⁵⁰⁾을 실현시키기에는 역부족과 군사적인 한계성이 있으므로 장차 지구전을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주 47) 김일성 사망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에게 김정일이 내놓은 당적구호로서 1996년 1월 1일 발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노동청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48) <http://goodfriends.or.kr/kor/dae91.htm> (사)좋은벗들 사무국장 정안숙에 의하면 식량난민 1,8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최근까지 북한 주민 중 약 350만명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영양실조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 가족의 평균사망율은 28.2%에 이르고 있는데 북한의 전체 인구 2,200만명 중 북한의 지배층(약 15%, 약 300만명)과 농민층(약 30%, 약 600만명)을 제외하고 1,300만명에 위의 사망률을 적용하면 1,300만명×0.282≈350만명이 된다.

49) 김군식, “북한 이탈 주민 증가와 대량 탈북시 군의 대비방향”, 『군사평론』, 제359호(2002), p.13.

50) 육군본부, 『敵을 알자(I)』(2003), pp.2-4~2-5. 북한의 3대 혁명역량론은 김일성이 1965년 4월 인도네시아의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내용은 북한내 자체혁명역량의 구축, 남한내 동조혁명역량의 부식, 국제적 지원혁명역량의 획득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재 남침을 기도한다면 작전적 수준에서 중심상 한·미 연합군의 주력을 고착시킨 가운데 핵, 화학탄, 생물무기, 땅굴, 갯도 요새화 진지, 특수작전부대, 장거리 포병 등 비대칭 전력을 단기간내에 최대 수준으로 집중하여 속전속결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군은 과거 한국전쟁 시 겪었던 과오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공세적이고 남진 템포를 가속화하기 위한 배합전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합전은 ‘한 작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전투형태를 결합하여 실시하는 작전으로서 북한군 전술의 기본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후방 없는 전쟁’을 말하며 전투의 형태와 방법, 전투지역은 서로 다르나 부대들 간에 상호 작전 또는 전술적 연계를 맺고 하나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으로서 정면타격과 후방 교란활동을 동시 수행하여 전 중심을 전투지대화 함으로써 속전속결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⁵¹⁾ 이러한 배합전은 한국전쟁 당시 패퇴요인인 전진속도의 부진과 후방 교란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전술적 속전속결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작전적 속전속결로 발전시켜 조기에 전승을 획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0년 11월 2일 당 제 5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을 잘 이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는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옹계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⁵²⁾ 정립된 배합전은 체계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전투형태면에서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고, 전투 규모면에서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을 배합하는 2개의 기본형태로 정립되었으며, 기타 배합형태는 이 기본형태에 적용하기 위해 공격시 정면타격과 후방교란의 배합 등 각종 전투기술면에서의 배합, 그리고 운용제대에 따라 전술적 배합, 작전적 배합, 전략적 배합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장차전 발발시 북한군은 약 12만여명의 특수작전부대를 제일 먼저 육상·해상·공중으로 침투시켜 남한의 전쟁지도부, 지휘통제체계,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및 군사보안목표를 기습 공격하여 군사력의 발휘제한과 미 증원전력의 전방 이동 및 전개 차단, 전기·급수·가스공급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극도의 사회혼란을 조성한 후 이미 전방지역에 전개된 지상군 부대가 재편성 없이 핵, 화학탄, 생물무기 등 각종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여 일거에 한·미 연합군의 전·후방 전투력을 무력화 및 무능화 시키고 서울 및 수도권을 전략적으로 포위하기 위해 동서를 가르며 대전방면으로 중심 고속기동전을 감행하는 등 전략적 배합전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51) 상계서, p.3-8.

52) 상계서, pp.3-8~3-9.

V. 한국군의 미래전 수행을 위한 발전방향

1. 전승 보장을 위한 군사혁신 추진

먼저 우리 군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신 군사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유사 이래 우리 민족은 약 930여회에 걸쳐 외침을 받았으며,⁵³⁾ 평균 5년에 한번씩 전란의 참화 속에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영위해 온 나머지 심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잊자’는 망각의 관념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빈번한 외침 속에 죽임을 강요당하고서도 50년 내외 기간만 경과하면 “언제 우리 민족이 그런 전란의 고통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할 정도로 망각의 습성이 침습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55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6. 25전쟁, 그로부터 다시 4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침략, ... 그 이전으로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병자호란, 그로부터 다시 4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등 면면이 외침을 허용한 망각의 폐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强者存’의 군사사상을 자각하여야 하며, 현존 위협 및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비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민족의 대수난, 나아가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영토를 상실하고 망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현존 위협 및 잠재적 위협세력이 우리 군의 작전적 기도를 알았더라도 이미 조치하기에는 늦었다’라는 전략적 기습의 달성과 先勝求戰을 위한 군사혁신 차원의 신 군사전략이 수립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군은 경제력에 기반을 둔 필요충분적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일찍이 율곡 이이가 ‘십만 양병’을 주장하며 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지만 당시 지배계층은 이를 배척하다가 왜구의 침략을 허용하여 이 강토가 초토화되는 불행을 자초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방위할 국방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한 가정에 적용하면 월 급여 내지 소득을 고려한 저축이나 보증보험 가입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어느 가정에서 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가족 중 교통사고나 중병 발생과 같은 어떤 과도한 지출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력을 반영한 ‘국방저축’이나 ‘국방보험’에 가입해 놓지 않을 경우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모든 국민은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타이완 등 우리나라와 안보여건이 비슷한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GDP의 9%, 5% 정도를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다.⁵⁴⁾

주 53) 황인수, 『한국적 지휘통솔』, 국군홍보관리소, 1987, p.62.

54) 김정익, “이라크 전쟁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합참』, 제21호(2003), p.70.

따라서 국방정책 차원에서 선진국의 GDP 대비 국방비율 등을 고려하면서 국가이익과 안보요구를 반영한 적정비율의 국방비 수준을 확정하고, 항구적인 중·장기 전력기반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평시부터 전쟁준비 및 여건조성 추진

먼저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는 유관기관 작전을 시행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지금 이라크에서 미군 등 연합군이 2년 넘게 상대하는 저항세력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즉, 어느 국가나 정부에 속해 있지도 않고, 과격하고 광신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주를 이루며, 어떤 법적 또는 도덕적 제약에도 구애를 받지 않으며, 테러를 주무기로 사용하고, 항복하거나 타협하지도 않는, 중세적 관념과 현대적 기술을 기이하게 혼합한 형체가 없는 존재다.⁵⁵⁾ 이것은 바로 미래의 전쟁양상이 사상적, 종교적, 인종적, 영토적 분쟁 등 각종 갈등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냉전적 사고나 이분법적 피아식별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문제 해결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군은 과거와 같이 적대세력에 대해 군사력만으로 어떤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시도한다든가, 극히 제한적인 ‘전쟁이외의 작전’(MOOTW)⁵⁶⁾을 통해 현존 위협 및 잠재적 위협세력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전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전체 국면의 조성 차원에서 가상적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유관기관 작전을 시행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우리 군은 미래의 군 구조를 연구 검토하여 과학기술군으로 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미군은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통해 군사변혁의 가능성을 시험하였으며, 미래전에 있어서 「전자적 전격전」등 새로운 영역의 군사작전의 성공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검증과정을 거쳐 효과에 기반을 둔 신속결정적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력 효과위주의 편성체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Rolling Start 개념을 적용한 유사시 작전반응시간을 단축시켜 신속결정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부대로 개편시키고

주 55) 송승중, “이슬람 문화는 동맹군 고립시켜”, 『국방저널』, 제379호(2005년 7월호), p.38.

56) 육군교육사령부, 『지상작전(수행교리)』(2003), pp.9-1~9-2. 전쟁이외의 작전(MOOTW :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은 주로 전쟁과 구분되는 분쟁이나 평시 상황에서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군사활동을 말한다. 전쟁이외의 작전목적은 전쟁억제 및 확산방지, 분쟁해결, 국가정책 지원 및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있다. 만약 우리 군이 미래의 과학기술군 구조로 개편되지 않으면 이라크전에서 선진화된 미군과 그렇지 못한 영국군 등 연합군간 협조된 작전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차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제한사항이 따를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편제 개편 등을 벤치마킹하여 효과중심의 신속결정적작전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형 과학기술군 구조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3. 한·미 연합전력 운용체계상 불균형 극복대책 추진

우선 우리 군은 복합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비한 C4ISR 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작전 성공의 기여도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분야중의 하나가 정보작전(IO)이다.⁵⁷⁾ 미군은 이라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단(SOG) 등 인간자산으로부터 군사위성, 통신위성 등 우주자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시수단을 운용하여 실시간대 이라크의 전쟁지도부, 지휘통제시설, 핵심표적을 획득, 복합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 군별, 제대별, 기능별로 획득된 정보를 공유하여 이라크군의 작전적 기도와 전투력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면서 공세적인 작전을 실시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 군은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감시 및 정찰능력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주한미군으로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관련업무를 공유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면서도 국방목적상 복합 네트워크체계 개발수준은 미약하며, 이제 겨우 전술C4I체계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으로 한·미 연합전력 발휘를 위한 C4ISR 복합 네트워크체계 개발 및 임무수행 능력측면에서 상호 현저한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사시 주한미군과 대등한 수준에서 연합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위성, 통신위성 발사 등 C4ISR 복합 네트워크체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핵심 군사기술을 개발하여 효과위주의 정밀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 걸프전시 미군은 이라크에 대해 약 5주간에 걸쳐 대규모 공습을 통해 대량 파괴 후 약 4일간 지상작전을 실시하여 유프라테스강선까지만 진출하고 종전을 선언하였다. 반면 이라크 전쟁에서는 특수작전부대 등 지상군 투입과 동시에 공습을 실시하되 정밀타격수단(PGMs)으로 이라크의 두뇌와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심과 핵심 노드만을 선별하여 집중 타격함으로써 걸프전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지상군 병력과 공중전력을 운용하여 개전 21일만에 바그다드를 조기에

주 57) 이철화, “신속결정적 효과기반 정보작전 발전방향”, 『합참』, 제22호(2004), pp.241~244.

점령하면서도 민간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장차 우리 군이 현존 위협 및 잠재적 위협세력과 전쟁을 벌일 경우를 가정할 때 핵, 화학무기, 생물무기, 땅굴, 갭도 요새화 진지, 특수작전부대, 장거리 포병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쟁이전이나 여건조성 시기에 이들 비대칭 전력을 효과적으로 제거 및 파괴하지 못할 경우 대량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군은 감시·정찰, 정밀타격, 지휘·통제, 정보·전자전과 신 특수 분야, 기반 전력의 정밀화·능동화·무인화에 중점을 두고 소요되는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⁵⁸⁾ 조기에 효과위주의 정밀타격체계를 확보하여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4. 적 중심에 직접 접근전략 구사 및 전후 점령지역 안정화 대책 추진

먼저 우리 군은 전쟁이전 단계에 현존 위협 및 잠재적 위협세력의 고립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구소련 연방 해체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질서의 재편과 함께 독자적인 경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나머지 그간 상호 견제의 대상이던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협력을 넘어서 양국간 군사적 협력강화를 통해 미국의 힘 우위의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5년 8월 18일~8월 25일간 산둥반도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양국 군대 10,000여명,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첨단무기를 동원한 가운데 3단계에 걸쳐 '평화의 사명 2005'로 명명된 첫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⁵⁹⁾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강화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권 확보를 통해 우리의 현존 위협세력인 북한의 대 중국·러시아 군사동맹관계를 일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전 단계에서 전쟁이외의 작전, 유관기관 작전,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통합한 지식 중심의 복합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외교적 활동 등을 통해 북한 지도부 및 군부 등 현존 위협 및 잠재적 위협세력의 적대적인 활동 및 역량을 점진적으로 약화 내지 고립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또한 유사시 적대세력에 대한 공황⁶⁰⁾ 유발과 심리적 마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방식의 심리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 간 공화국수비대 등 핵심전력을 가장

주 58) 신인호, “선진과학 기술로 국가 자존심 높여”, 『국방저널』, 제380호(2005년 8월호), pp.44~45.

59) 『국방일보』, 2005. 8. 23, p.2.

60)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1999), p.67. 공황(恐慌: Panic)이란 급변하는 사태에 놀라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현상으로 공포가 지나치면 무모하고 분별없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태가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많이 무력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미군의 심리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군은 전쟁 이전 기간에 각종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라크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이라크 정부 요인 등 전쟁지도부 인사들에게 E-mail,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투항을 권유하는 등 인지도를 확립시켜 사고와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였으며,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미군의 정밀타격체계 등 가공할 무기체계와 위력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중적인 심리적 공황의 확산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서 C4ISR+PGMs체계를 운용하여 이라크의 전쟁지도부, 지휘통제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여 이라크군의 전의와 대항의지를 박탈, 전장이탈과 '충격과 공포' 같은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켜 절대적 마비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우리 군은 평시 현존 위협 및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한 충격과 공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심리전을 준비하여 유사시 적대세력의 대항의지를 박탈하고 마비를 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군은 적의 중심과 핵심 노드에 대한 「신속기동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갑 및 기계화 전력 등 작전적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시 이라크의 중심은 바그다드였으며, 핵심 노드는 정예 공화국수비대 등 핵심 군 지휘통제체계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군은 이라크군의 핵심 노드를 파괴하여 무능화시킨 후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이라크군의 중심을 지향한 최단거리 작전선으로 결정적인 작전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중심은 인체의 두뇌에 해당하며 핵심 노드는 중추신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때 위협세력의 두뇌와 중추신경에 대해 가장 신속하게, 최단거리 방향에서, 결정적으로 공세를 취해야만 조기에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차전에서 우리 군은 현존 위협 및 잠재적 위협세력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심과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핵심 노드를 조기에 식별하여 집중 공격하고 최단기간 내 최단거리인 중심으로 기동하여 결정적인 작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속 전력은 나머지 잔적을 구획 정리하여 공중공격, 포병화력 등을 동원하여 각개 격파하는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군은 장차전에 있어서 종전 후 점령지역 안정화 및 재건사업을 시행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미군은 벌써 2년 6개월여 기간 동안 이라크 내 저항세력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치안유지 및 질서회복을 위한 작전이 언제쯤 종결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라크 내에서의 안정화 작전은 중세와 현대를 넘나드는 역사적 인식, 회교의 독특한 본질, 극단적 성향의 광신주의, 종교의 이름아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관, 회교도들의 고유한 세계관 등이 혼재된 복합적 차원이라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⁶¹⁾ 최근 미국은 이라크에서 군사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으며 연합군사령부도 당면 목표를 적대세력 소멸로부터 이라크 치안군 양성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안정화 및 재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절대적으로 군사작전에만 비중을 둔 나머지 저항단체가 동조세력을 규합하고, 무장활동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가용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적대세력 및 위협자산에 대한 통제 및 동결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미래전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주한 미군과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여 종전 시기 점령지역에 대한 안정화 및 재건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전쟁이전 여건조성과 함께 민사작전 및 군정 실시방안을 병행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Ⅵ. 결 론

이라크 전쟁은 9·11 테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미국이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에 대한 배후 지원세력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 반테러 전쟁이다. 이를 통해 서남아시아에서의 취약한 친미정권의 확대, 그리고 장기적인 에너지원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라크 내 다양한 종파, 분파들로부터 미군은 소위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서 이라크에서 완전히 축출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11~13세기에 걸쳐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과 유사한 기독교와 회교간의 종교전쟁으로 확산되는 추세 속에 점점 그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군은 기존 이라크 내에서의 저항세력에 대한 응징작전만으로는 전후 안정화를 달성하기가 난망하다는 판단아래 이라크 자치정부에 의한 치안군을 조기에 육성하여 저항세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8월을 기점으로 이라크 전쟁의 경과를 분석해 볼 때 미군 등 연합군에 의해 주도된 약 21일 간의 효과에 기반을 둔 신속결정적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군사혁신 방안은 실제로 대테러전인 아프간 전쟁에서 1차 실험기간을 거쳤으며, 이라크 전쟁에서 2차로 검증과정을 통해 충분히 C4ISR+PGMs 복합 네트워크

주 61) 송승중, “이슬람 문화는 동맹군 고립시켜”, 『국방저널』, 제379호(2005년 7월호), p.38.

전쟁으로 대표되는 신속결정적작전의 실효성과 미래 전쟁의 양상이 될 「전자적 전격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미군의 군사작전이 성공적이었던 반면에 전후 이라크 내에서의 안정화 및 재건사업과 관련한 민사작전 및 군정은 그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전쟁기간중 미군 등 연합군의 전사자수 대비 전후 치안유지 및 질서회복 과정에서의 전사자수가 그의 12배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거기에서 이라크에서의 저항세력은 지속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이 실패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먼저 미래전에서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혁신 차원의 신 군사 전략 정립과 경제력에 기반을 둔 선진화되고 과학화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평시부터 유사시에 대비한 전쟁준비 및 여건조성 일환으로 유관기관 작전을 시행할 준비와 현행 다단계 지휘제대 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미래의 군 구조를 심층 연구하여 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미 연합전력 운용체계에 있어서 능력발휘상의 상호 불균형성 극복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미래의 복합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비한 CAISR 기능을 보강해야 하며, PGMs 즉, 효과위주의 정밀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하여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쟁이전 단계에 있어서 현존 위협 및 잠재적 위협세력의 고립화를 달성하고, 그들에 대한 공황 유발과 심리적 마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가상 적의 중심과 핵심 노드로 직접 접근하는 「신속기동전략」을 추구하면서 전후 대비 사전에 예상 점령지역에 대한 치안유지 및 질서회복과 재건을 위한 민사작전 및 군정 시행준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방저널 편집부, “이라크군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국방저널』, 제371호, 2004년 11월호
2. 김군식, “북한 이탈 주민 증가와 대량 탈북시 군의 대비방향”, 『군사평론』, 제359호, 2002.
3. 김재명, “아프간 토라보라 공습중 화상회의로 이라크 침공 논의”, 『월간중앙』, 2004년 10월호
4. 김정익, “이라크 전쟁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합참』, 제21호, 2003
5. 김태규, “효과기반작전(EBO) 개념과 한국군 적용 및 발전방향”, 『합참』, 제22호, 2004
6. 문광건·이준호,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영 연합군의 승인 분석” 『주간국방논단』, 제945호, 2003. 6. 9.
7. 박정규, 『한반도에서 미래 지상전 수행 발전방향 연구』, 2004
8. 박철균, “치안·질서유지 실기했다”, 『국방저널』, 제366호, 2004년 6월호

9. 박헌옥, “이라크 전쟁과 민사작전 교훈”, 『합참』, 제21호, 2003.
10. 송승중, “이슬람 문화는 동맹군 고립시켜”, 『국방저널』, 제379호, 2005년 7월호
11. 신인호, “신진과학 기술로 국가 자존심 높여”, 『국방저널』, 제380호, 2005년 8월호
12. 육군교육사령부, 『지상작전(수행교리)』, 2003.
13. 육군대학, 『전리입문』, 1998.
14. 육군대학, 『한국전투사』, 1998.
15.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1999.
16. 육군본부, 『敵을 알자(I)』, 2003.
17. 육군본부, 『지상작전』, 1999.
18. 육군본부, 『후방지역작전』, 2004.
19. 이장근, “이라크전을 통해 본 신속결정적작전(RDO)”, 『군사평론』, 제365호, 2003.
20. 이철화, “신속결정적 효과기반 정보작전 발전방향”, 『합참』, 제22호, 2004.
21. 전경만, “이라크 전쟁 처리의 한반도 안보 시사”, 『국방정책연구』, 제64호, 2004.
22.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 분석』, 2003
23. 황인수, 『한국적 지휘통솔』(서울, 국군홍보관리소, 1987)
24. 『경향신문』, 2005. 7. 11, p.11
25. 『경향신문』, 2005. 8. 9, p.12
26. 『국방일보』, 2005. 8. 23, p.2
27. 『한국일보』, 2005, 7. 26, p.12
28. http://www.donga.com/fbin/output?f=totalbo&code=b0__&n=2004.12200245&submenu=2
29. <http://goodfriends.or.kr/kor/dae91.htm>
30. <http://www.i-soccer.co.kr/section-007100007/2005/02/007100007200502161903219.html>
31. <http://www.kosis.nso.go.kr>
32. [http://search.imnews.imbc.com:8080/search/news__search.jsp\(2005.8.4\)](http://search.imnews.imbc.com:8080/search/news__search.jsp(2005.8.4))
33. [http://search.imnews.imbc.com:8080/search/news__search.jsp\(2005.8.5\)](http://search.imnews.imbc.com:8080/search/news__search.jsp(2005.8.5))